

업계소식

대한주택공사, 인천 논현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식 개최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인천논현 집단에너지시설 현관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주공 박세흠 사장, 왼쪽 네번째가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 내 바다광장에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논현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식을 거행했다.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 집단에너지시설은 주공이 구축한 첫 에너지공급 시설”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흠 사장은 또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대전서남부와

업계소식



▲ 최호선 (주)정호기업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대한주택공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아산배방에 집단에너지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공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지역 회원사인 (주)정호기업 최호선 대표이사가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주택공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2003년 8월 착공, 총 1천867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향후 인근 논현2택지개발지구 1만4천854가구를 비롯, 인천 남동구, 남구 및 연수구 내 6만여 가구에 열을 공급한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은 송도 LNG기지에 있는 남부생활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시간당 73Gcal의 쓰레기소각열을 끌어올 수 있도록 설계돼 앞으로 10만가구 까지 열 공급을 확대한다.

3만8천162㎡ 대지에 준공된 집단에너지시설은 시간당 51Gcal의 열을 만들 수 있는 24Mw급 발전기, 시간당 112t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등으로 이뤄진 주요 지역난방 설비와 함께 120m 높이 굴뚝에 360㎡ 넓이의 회전식 레스토 랑을 포함한 전망대와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업계소식

제14회 한·일 건설경제교류회의 개최



▲ 제14회 한·일 건설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1월 20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제14회 한·일 건설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1월 20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건설교통 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 건설환경 혁신 및 건설산업 정책방안, 공공공사 품질확보 등에 관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 단장인 박상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정책은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양국간 정책, 제도적 괴리감을 해소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 국가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보다 양국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 단장인 나카지마 마사히로 국토교통성 건설유통정책심의관은 “한·일 양국은 건설산업 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며 “회의를 통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설교통 R&D 정책방향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방안 등 세 가지 과제를, 일본측은 △국토교통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 대책 △금후의 건설산업정책의 방향성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품질확보 등 세 가지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김정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부장이 참석했다.

한·일 건설경제교류회의는 지난 94년부터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한·일 양국의 건설시장 및 산업현황, 건설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이해를 통해 양국 간 건설산업 교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7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 개최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내빈들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간건설신문과 건설외주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후원한 '2007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26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 박상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권홍사 '일간건설신문'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상생협력은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업역단위의 이해관계를 넘어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수상 내역

부 문	성 명	회 사 명	직 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표창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박창서	성백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또한 "상생경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 원사업자와 협력사 간 공동체인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건설협력증진대상은 건설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특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업역다툼 등으로 손상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 건설인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고 또한 올해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신설하는 등 상의 권위와 품격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건설업계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공로부문과 협력부문(기계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개인부문으로 나눠 진행 됐으며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11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5개, 주최자상 2개 그리고 대상 1개 등 총 24개의 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 는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을, 박창서 성백산업개발(주) 대표이사가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업계소식

영광의 설비건설인

수상자 인터뷰



▲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성 열 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 설비건설분야의 발전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원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품질향상에 매진하는 것이 설비건설업체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안전시공과 완벽한 시공관리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열구 대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제 5·6대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설비건설업의 발전

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밭대학교, 우송공업대학 및 충남기계공고 등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설비건설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간중심경영’, ‘정도와 지혜의 경영’을 통해 경영상태와 기술력을 키워 ‘작지만 강한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성열구 대표이사.

이런 회사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성열구 대표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업계소식



▲ 박창서 성백산업개발(주)대표이사가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

박 창 서 성백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박창서 성백산업개발(주)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을 간략하게 밝혔다.

1993년 창립부터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태도로 회사를 이끌어온 박창서 대표는 삼성물산 등 많은 건설업체와 파트너십을 유지, ‘상생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다.

박 대표는 “철저한 현장공정 진행과 품질관리를 통해 원도급사로부터 신뢰를 더해갈 때 가장 흐뭇하다”며 “무리하게 수주를 늘리기보다 회사 능력에 알맞게 수주해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서 대표는 “아직 국내에서는 건축물 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며 “관련 기술공법을 개발, 상용화 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드러운 인상에 침착한 말투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프로정신으로 뚝뚝뚝친 박창서 대표이사.

“전문업체로 성장 할 수 있는 길은 기술력과 성실함이 필수”라며 “이 상을 계기로 기술력 향상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힌 박창서 대표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